

INORGANIC CHEMICALS 전망

94년 비료산업계 최대 이슈로는 94년7월 실시된 한국비료 공개입찰을 들 수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삼성그룹이 2300억원에 낙찰받았다.

한국비료를 삼성정밀화학으로 탈바꿈시킨 삼성그룹은 97년까지 5000억원, 2000년까지 1조원을 Chemicals 및 Specialty Chemical분야에 투자해 한국비료가 추진해 온 정밀화학사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기업공개일정이 잡혀져 있는 남해화학은 94년3월~95년5월까지 공개절차를 거쳐 95년7월 한국종합화학 보유주식 30%를 매각하고, 95년말까지 잔여주식 전량을 매각해 민간기업으로 전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남해화학을 인수할 기업이 어디인가에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제2의 한국비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화학은 요소·암모니아 등 비료원료를 이용해 각종 Specialty제품 생산계획을 추진중인 국내 최대의 비료기업이다.

따라서 남해화학을 어느기업이 인수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비료산업 및 Chemicals분야의 판도변화 추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정밀화학과 비료산업 및 관련유도품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생산 경쟁력과 무관한 증가세

국내 비료산업은 95년 WTO가 정식 출범함으로 인해 주변환경 및 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료산업 특성상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이 주변국에 비해 약한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95년이후 환경규제가 강화돼 이에따른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여기서 파생되는 자금회수율이 악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특히, 비료산업은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 등으로 환경규제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대비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료산업은 90년대들어 비료판매자율화 조치이후 내수의 안정적 신장과 수출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 비료기업들은 효율화된 생산공정과 원가절감·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신비종 개발연구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비료종류별 공급추이를 보면, 요소가 비종의 대부분을 차지한 과거와는 달리 요소의 공급이 감소하는 대신 복합비료가 주종을 이루는 선진국형 구조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94년 화학비료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20만2000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종별 수출실적		(단위 : 1000M/T, 1000달러)					
		1992		1993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황산암모늄		303	19,821	323	21,563	106.6	108.8
황산가리		28	5,855	16	3,241	57.1	55.4
기타		6	1,161	6	1,186	100.0	102.2
(복합비료)		916	146,689	1,105	153,625	120.6	104.7
D A P		132	28,022	112	19,785	84.8	70.6
N P K		784	118,667	993	133,840	126.7	112.8
합계		1,253	173,526	1,450	179,615	115.7	103.5

비료 수출실적(국가별)		(단위 : 1000M/T, 1000달러)					
		1992		1993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타이		751	105,751	1,091	133,000	45.3	25.8
베트남		264	40,844	189	27,757	▽28.4	▽32.0
일본		63	12,942	45	9,291	▽28.6	▽29.2
필리핀		96	7,723	61	3,747	▽26.5	▽51.5
기타		79	6,266	64	5,820	▽19.0	▽7.1
합계		1,253	173,526	1,450	179,615	15.7	3.5

또 화학비료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은 계획생산과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94년 91.2%를 기록해 93년의 공장가동률인 95.6%와 비교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화학비료 수입은 13만8000톤으로 93년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는 302만1000톤으로 93년대비 0.5% 줄어들었으며, 수출은 153만톤으로 93년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출액은 2억1500만달러로 93년대비 8.6%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일반적인 비료 수요패턴은 1~6월까지 성수기이며, 7~12월까지가 비수기이다.

이에따라 수출은 국내 비수기인 7~12월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비료 수출 대상지역은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타이와 베트남이 전체 수출물량의 약 80%를 점하고 있다.

94년에는 타이가 가뭄과 홍수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해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베트남은 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한편, 94년에는 국내 비료원자재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한해였다. 특히 암모니아 가격파동으로 비료 제조원가에 상당한 인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94년초 톤당 FOB기준 120달러대였던 암모니아가격이 4월 140달러, 8월 180달러, 9월 210달러(국내 도착도 C&F기준 톤당 270달러)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같은 암모니아 가격인상 요인은 구소련지역에서 암모니아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인상되었고 흑해연안의 시설고장으로 암모니아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며, 인디아의 대량 구매와 미국의 수요증가 및 인도네시아의 공급차질에서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암모니아 가격인상은 이를 원료로 하는 요소 등의 가격인상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CA산업 수요 10%대 지속적 증가

국내 CA산업은 여천석유화학단지가 80년 완공됨으로써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화학비료 수급실적(1994)

(단위 : 1000M/T, 1000달러)

		증 감 률			증 감 률		
		3/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생	산	931	▽3.4	▽16.8	1,022	▽1.4	9.7
가	동	80.8	▽11.8	▽16.8	88.7	▽10.1	9.7
수	입	11	▽77.5	▽54.2	30	▽49.2	172.7
판	매	936	▽7.7	▽11.0	1,100	6.2	17.5
내	수	464	▽19.8	▽45.3	740	▽2.4	59.5
농	업	310	▽20.7	▽46.0	451	▽3.6	19.7
공	업	56.4	▽15.2	▽13.8	58	▽1.7	▽10.6
원	료	97.2	▽20.5	▽43.6	230	▽0.4	89.3
수	출	472	8.5	40.5	360	29.5	▽23.7
금	액	67	28.8	39.6	51	50.0	▽23.8
재	고	161	18.4	35.3	210	1.4	30.4

주) 수출실적은 FOB 통관기준

비료생산 및 출하실적(비종별, 1994.1~10)

		확			보			출			하		
		전년이월	생 산	수 입	합 계	농업용	공업용	원료용	수 출	합 계	농업용	공업용	원료용
요	소	44,651	736,857	98,023	879,531	372,104	175,729	30,135	-	849,184	-	-	-
복	비	116,464	2,239,086	1,203	2,356,753	1,212,144	-	51,314	955,783	2,219,241	-	-	-
유	안	17,634	395,501	-	413,135	21,319	28,693	101,309	247,985	399,306	-	-	-
인	산	24,393	132,779	-	157,172	56,670	-	96,136	-	152,806	-	-	-
황	산	3,489	57,586	-	61,075	10,936	-	24,776	23,362	59,074	-	-	-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는 74~79년까지 평균 25%에 달하는 고성장가도를 달렸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여천에 제2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가성소다 공급은 92년 전년대비 28% 증가한 49만6000톤에서 93년에는 50만8000톤의 실적을 보였다. 이것은 신규 및 증설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은 80년대이후 매년 10만톤 가량을 수입해 오다 92년 4만2000톤으로 감소, 93년에는 다시 8만 8000톤의 수입실적을 보였다.

이에따라 93년초이후 값싼 수입품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높은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성소다 생산기업들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소다의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 93년 기준 무기화학 26%, 섬유산업이 20%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기화학이 14%, 식품산업이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 5년간의 수요추이를 분석해 보면, 제지·식품·유기화학·수처리분야 등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이에반해 섬유산업에서의 향후 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섬유분야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는 국내 레이온제조기업 공장폐쇄와 더불어 비누·세제소비가 수처리와 관련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CA산업은 가성소다와 염소가 1대0.9의 비율로 생산되는 밸런스산업이므로 가성소다와 염소의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성소다와 염소산업은 가성소다 제조원가에서 염소를 부산물 개념으로 보고 있어 염소의 유도품 등 수요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CA는 가성소다와 염소가 거의 같은 양으로 병산되는 밸런스산업으로, 가성소다는 국제교역이 가능한 품목인 반면, 염소는 물성상 대량운송이 불가능해 염소유도체제품으로 국제교역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염소의 생산은 염소유도체 공업이 있는 곳에서만 성립된다. 다시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도 유도체공업을 위해 생산하게 되고, 두제품중 남은 물량은 수출할 수 밖에 없으며 가격등락이 심한 특성을 나타낸다.

염소 수요는 92년 전년대비 8.2% 증가한 86만2000톤, 93년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93만9000톤의 실적을 보였다. 즉 89~93년에 걸친 4년동안 56만7000톤으로 565%의 수요증가를 나타냄에 따라 가성소다 생산기업들은 전해설비를 확장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93년기준 국내 전해기업들의 염소 생산량은 전체 점유율의 54%인 50만4000톤을 나타냈고, 46%인 43만5000톤은 염소유도품으로 수입대체됐다.

지난 2년동안 가성소다 수요는 비누와 세제를 제외하고 9~10%가량 꾸준히 증가했고 국내경기가 94년 4/4분기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요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96년에는 가성소다 수요가 75만2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염소 수요는 PVC 생산능력 확장 및 염소유도체인 ECH·MDI·TDI의 생산능력이 늘어남에 기인해 지난 10년간 큰폭으로 성장해 왔다.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민감한 아이템들의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염소 수요는 96년까지 적어도 7%이상 성장해 113만1000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가성소다와 염소의 수급불균형은 45만8000톤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93년의 수급불균형 물량에서 3만5000톤 증가한 실적이다.

가성소다와 염소의 수요는 향후 몇년간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내 공급능력은 이러한 수요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가성소다의 수입의존도는 93년 15%에서 96년 20%로, 염소(염소유도품 기준)의 수입의존도는 93년 46%에서 96년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향후 몇년간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CA산업의 증설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다.

신증설계획의 장애요인으로는 국내 생산기업들이 높은 제조원가 및 원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과 수입된 가성소다 및 염소유도품이 국내 시장가격에 민감하게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CA산업의 생산기업과 실수요자들의 노력 및 인식전환이 하루빨리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에야 비로서 CA산업 및 관련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

축되는 것이다.

세계 가성소다 생산능력 (단위 : 1000M/T)

기 업	생산능력		
북 미		핀란드	
		Finnish Chemicals	155
		Kymi Papermills	68
캐나다		Veitsiuto	69
		Canadian Occidental Petroleum	160
		Canadian Pacific Forest Products	24
프랑스		Elf Atochem SA	824
		Potasse et Produits Chimiques	78
		Rhone-Poulenc Chimie	246
PPG Canada		Solvay SA	310
		Other	25
독 일		BASF	301
		Bayer	864
		Chemie AG	132
미 국		Dow Chemical	3,246
		Elf Atochem	345
		FMC	65
Formosa Plastics		Dow Stade	995
		Elektor-Chemie Ibbenburen	160
		Hoechst	881
Fort Howard		Huls	360
		ICI Atlantik	145
		Solvay Alkali	241
Georgia Gulf		Wacker-Chemie	177
Georgia-Pacific		HoltraChem Manufacturing	136
		LaRoche Chemicals	210
		Niachlor	244
BFGoodrich		OxyChem	3,345
		Olin	850
		Ausimont	87
Pioneer Chlor-Alkali		Caffaro	56
		Chimica del Friuli	66
		EniChem	907
Solvay		Societa Elettrochimica Solfurie	
		Cloroderivati	55
		Solvay	112
Vulcan Chemicals		Other	20
Weyerhaeuser		Other	20
남 미		Other	20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Akzo	494
		Solvay Chemie	151
Electroclor		Other	45
Induclor		포르투갈	81
		스페인	
		Energia e Industrias Aragonesas	223
Other		Erkimia	162
		Solvay	274
		Other	101
브라질			
Dow		노르웨이	
		Norsk Hydro	142
		Other	79
Salgema			
Carbocloro			
Solvay			
Other			
칠 레			
OXyChem			
콜롬비아			
Aicalis de Colombia			
페 루			
베네주엘라			
서유럽			
벨기에			
BASF Antwerpen			
Solvay SA			
Tessenderlo Chemie			

가성소다 및 염소 수급전망 (단위 : 1000M/T)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가성소다	수 요	525	581	633	690
	생 산	496	508	537	590
	수 입	42	88	96	105
염 소	수 요	862	939	968	1,033
	생 산	491	504	533	582
	수 입	370	435	435	451
염소 수요 (가성소다 환산)		920	1,004	1,036	1,105
가성소다 · 염소불균형		395	423	403	415

국내 가성소다 생산능력(1994) (단위 : DMT)

	제법별 생산능력		합 계
	이온교환막법	격 막 법	
한화종합화학	209,900	197,100	407,000
백 광 산 업	60,700	-	60,700
삼성정밀화학	50,000	-	50,000
동 양 화 학	32,800	-	32,800
한 국 오 츠 카	21,900	-	21,900
국 도 화 학	6,200	-	6,200
동 진 화 성	8,300	-	8,300
조 흥 화 학	-	4,700	4,700
합 계	389,800	201,800	591,600

가성소다 수요현황(용도별)

(단위 : 1000M/T)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섬 유	79.8	97.8	103.2	116.7
화 섬	25.3	23.3	25.7	22.4
비 누 · 세 제	36.1	32.1	28.8	29.0
제지 · 셀로판	21.5	24.2	28.6	39.6
식 품	48.1	54.9	59.3	62.0
무 기 화 학	100.2	121.2	154.4	152.3
유 기 화 학	61.3	75.2	56.5	83.5
금속 · 세라믹	18.0	19.4	24.4	25.0
전 기 · 전 자	7.2	8.7	7.7	9.3
수 처 리	12.7	14.2	25.9	27.2
기 타	7.5	9.1	10.7	14.0
합 계	417.7	480.1	525.3	581.0

한편,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가성소다 및 염소공장 건설계획을 추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5만톤규모로 참여한 삼성정밀화학과 95년 6만톤규모 가성소다 생산능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한화중합화학 등의 신·증설이 맞물려 향후 5년 이내 공급과잉이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또 90년초 신규사업을 계획했던 금호가 5만톤규모의 가성소다 및 염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전해조 공장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5년 이내 가성소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다.

가성소다,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94년 CA산업계의 최대 이슈가 됐던 액체가성소다 덤핑제소 문제는 94년12월9일자로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산업무피해라는 최종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에서 무피해판정이 내려짐으로 인해 사실상 반덤핑제소는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덤핑조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액체가성소다의 덤핑조사는 한국소다공업협회가 94년4월 미국·중국·벨기에·프랑스산 제품을 대상으로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94년 국내 무기화학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었다.

이후 94년8월에는 관세청으로부터 84.9~250.2%라는 예비덤핑마진율 판정을 받았고, 94년9월에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금정 예비판정을 받았었다.

이와관련 부과내용을 보면, 94년10월28일부터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로 CIF기준 DMT 당 20만7237원인 기준수입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기준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기로 했으나 최종판정에서 번복됐다.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따르면, 94년 상반기까지 수입 액체가성소다의 덤핑수입이 증가한 반면 2/4분기부터 수입가격이 재상승하면서 국내산업도 호전되고 있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가성소다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하락 및 공급량 조절에 어려움이 수반돼 국내 생산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산업특성상 일정량의 재고를 유지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94년말 현재 93년 재고량인 4만여톤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가성소다 수입은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에 힘입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확정

95년 특정물질기금 운용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선진국의 규제물질 전폐시기 임박 등 국제환경변화에 국내관련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체물질의 개발·이용 등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자금의 지원과 최신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밀화학진흥회는 95년 대체물질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출연 및 융자 등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사업에 기금조성액의 93%인 50여억원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